

네가 낮고자 하느냐

정말 변화되길 원하는가

본문 · 요한복음 5:1-9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변화되길 원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있는지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참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문을 통해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비의 집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상하고 연약한 인생을 은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광야가 있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2 율법의 기능과 한계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다섯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다섯 행각은 모세오경을 상징하며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치유를 기다리며 연못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열심을 요구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유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법과 형식에만 매여 있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인간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3 네가 낮고자 하느냐

수많은 병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낮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병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잃어버립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모습에 적응하고,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변화의 중요성과 변화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죄, 오래된 상처, 오래된 기도제목 때문에 이미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이야기했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낫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7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일이 38년째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비의 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FOR OUR GROUP

함께 나누는
적용 질문

Q1

말씀 듣기 전 나의 삶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변화되기를 바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포기하거나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Q2

깨달게 된 나의 상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낫고 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변화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Q3

변화된 삶의 결단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함께 기도할 제목

